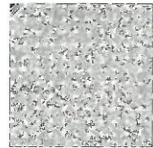


시울주보

제2312호 2020년 11월 15일(가해)
연중 제33주일(세계 가난한 이의 날)

발행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염수정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입당송 | 예레 29,11.12.14 참조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재앙이 아니라 평화를 주노라. 나를 부르면 너희 기도를 들어 주고, 사로잡힌 너희를 모든 곳에서 데려오리라.

제1독서 | 잠언 31,10-13.19-20.30-31

화답송 | 시편 128(127),1-2.3-4-5(◎ 1ㄱ 참조)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네 손으로 벌어 네가 먹으리니, 너는 행복하여라, 너는 복을 받으리라. ◎

○ 너의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 너의 밥상에 둘러앉은 아들들은, 올리브 나무 햇순 같구나. ◎

○ 보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듯 복을 받으리라. 주님은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너는 한평생 모든 날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라. ◎

제2독서 | 1데살 5,1-6

복음환호송 | 요한 15,4.5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

복 음 | 마태 25,14-30<또는 25,14-15.19-21>

영성체송 | 시편 73(72),28

저는 하느님 곁에 있어 행복하옵니다. 주 하느님을 피신처로 삼으리이다.



서로를 돌본다면 이 세상은?

황경원 안드레아 신부 | 사회사목국 국장

오늘 복음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하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눌 것’이라는 말씀입니다(마태 25,21 참조).

올 설 연휴를 지낸 직후부터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것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입니다. 많은 이가 자신의 안위에 몰두하며 마스크를 쓰고 누가 바이러스를 옮기지나 않을지 전전긍긍했습니다.

한편에서는 마스크가 없는 이들을 위해 집에 여유가 있는 마스크를 모으자고 제안해서 필요한 곳에 나누기도 했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기나 건물에 대한 방역작업을 시민 스스로 모여 솔선수범했습니다. 서로를 돌보는 모습입니다.

내(가족)가 소유한 자산(부, 재능)은 나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으며,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수많은 사람의 노동과 자연의 도움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받은 것을 이웃과 나눠야 하며,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나누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재물이나 권력이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으로 여기며 함부로 휘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느님 대신에 그 어떤 것을 승배(재물, 권력, 쾌락, 국가 등)하면 ‘우상 승배’라고 가르칩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2113항 참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0)라고 하시며, 우리가 행해야 할 길을 분명히 제시하십니다.

오늘은 ‘제4차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이며, 교황님의 담화 주제는 “가난한 이에게 네 손길을 뻗어라”(집회 7,32)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회적 약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 주위에 차별받는 분들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예를 들어 연령 차별, 계급 차별, 장애인 차별, 성차별, 인종 차별, 종교 차별, 직업 차별, 학력 차별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차별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 제도와 구조를 만드는 일에 힘을 보탤 수 있습니다.

교회는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들을 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시는 표징이 된다”고 선포합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2443항). 가장 약한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것은 서로를 돌보는 일입니다. 세상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어느 것도 우리와 무관한 것은 없습니다.



“가난한 이에게 손을 펼치고 불쌍한 이에게 손을 내밀어 도와준다.”(잠언 31,20)



손안에 올려진 봉당연필은 약소하나 하얀 노트 위에 적어 나갈 자신의 미래는 저 높은 산을 넘을 수 있을 만큼 크고 넓습니다. 그 미래를 키워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사랑과 관심입니다. 커진 꿈은 우리 다음 세대를 더 풍요롭고 아름답게 지켜줄 것입니다.

유별남 레오폴도 | 가톨릭사진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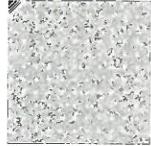


말씀의
이삭

최고의 권위와 자존감은 겸손에서 나오는 섬김의 마음에서….



손병선 아우구스티노 | 평협회장



얼마 전 슈퍼스타 'BTS(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가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핫 100'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해 K-POP의 위력을 실감하게 했고, 한류 문화의 자존감을 살려주어 한국 음악사에도 대기록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또 올해는 다양한 음악 장르 가운데 유난히 트로트가 대세를 이루며 '코로나 19'로 지친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한 해였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길어지는 코로나 팬데믹에 힘들어하는 국민을 위해 한 방송사에서 특별기획한 프로그램 <대한민국 어게인>이 트로트 열풍에 가세해 추석 연휴를 달구며, 한가위 보름달보다 높이 뛴 국민가수 '나훈아'의 밤을 연출해 냈습니다.

공연 중 '1등 국민', '국민의 힘'을 치켜세우며 쏟아 낸 사이다 발언들도 화제가 되었지만, 열정과 진정성 있게 펼쳐진 무대가 많은 국민들에게 격려와 응원이 되고, 답답한 우리 마음속을 시원하게 대변해주었습니다. 73세라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프로 중의 프로임을 확실하게 입증시킨 나훈아 씨에게 많은 언론 매체는 이름 앞에 '가황(歌皇)'이라는 별칭을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저도 좋아하는 가수 중 한 사람인데, 소신 있는 삶의 방식과 무엇보다 인간 나훈아의 식지 않는 열정, 끊임없는 변화의 노력은 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채찍이 되기도 했습니다.

프로그램 이후 나훈아의 신곡 '테스형'이 화제가 되고, EBS의 마스코트 캐릭터인 '펭수'마저 '펭훈아'로 변신하는가 하면 유튜브에는 새로운 버전의 '테스형' 커버송들이 가득합니다.

"아! 테스형/ 세상이 왜 아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형/ 소크라테스형/ 사랑은 또 왜 아래/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형"

'테스형'은 2,500년 전 진리를 추구하며 '너 자신을 알라'는 명언을 남긴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에게 세상의 현실과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하소연하는 노래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아무리 서양철학의 시조로 불린다 한들 코로나 태풍 속에 이어지는 삶의 고통에 어떠한 답을 줄 수는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더 좋은 하소연의 대상이자 답을 찾는 길이지요. 아집과 독선, 편견이 독버섯처럼 피어나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 사회 안에서 나 자신, 그리고 우리 신앙인에게 필요한 것을 찾아보자니, '소크라테스'가 우리에게 남긴 경구 "너 자신을 알라"에서 더 나아가, '겸손에서 나오는 섬김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섬김의 아버지이자 아이콘이신 예수님과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보여주시듯 최고의 권위와 자존감은 섬김과 겸손의 리더십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나를
이끄는
성경구절

너희는
내 사랑한
머물러라

이경희 윤리잇따
한강성당

요한 15.9.

죽음·심판·천국·지옥

그리스도교 사말교리(四末敎理)

11월이 되면 싱싱함을 뽐내던 여름의 나무들이 다양한 색깔의 단풍으로 온 세상을 물들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잎을 떨구고 양상한 가지만을 남긴 채 겨울을 준비합니다. 온 세상이 자신의 끝을 준비하는 이 시기, 교회는 위령 성월을 통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모든 생명의 주인이심을 다시금 기억하며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

난 이들을 기억하고 각자가 맞이하게 될 죽음을 충실히 준비하도록 신자들을 초대합니다. 이를 위해 교회는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마지막 때의 네 가지, 곧 죽음, 심판, 천국, 지옥이라는 “사말”(四末)에 관한 교리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가르칩니다.

사목국 기획연구팀

1. 죽음

성경을 바탕으로 교회는 태초에 인간이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으나, 하느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그분과 같아지려는 교만으로 지은 범죄, 곧 원죄(原罪)로 인하여 죽음의 짐배를 받게 되었다고 가르칩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왔듯이, 또한 이렇게 모두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미치게 되었습니다.”(로마 5:12)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인간이 걸어온 지상 생활의 끝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죽음 이후 다시 이 세상에 돌아온다는 환생설(還生說)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느님께서는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인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는 죽음이 죽음이 아니요 오히려 새로운 삶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며 하느님의 초대입니다.

2. 심판

그리스도인은 죽음 이후, 육신과 분리된 불멸하는 영혼은 하느님 앞에 나아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죽음 직후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심판을 ‘개별심판’(사심판)이라고 하고 세상 종말에 있을 마지막 심판을 ‘최후심판’(공심판)이라 합니다. 개별심판은 살아있던 동안 행실과 믿음에 대한 셈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결과로 우리는 연옥, 천국, 지옥에 들게 됩니다. ‘최후심판’

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있게 될 총체적 심판으로, 이 심판의 기준은 가장 보잘것없는 이웃에게 베푼 자비와 사랑입니다.

3. 천국

천국은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을 간직하며 살던 이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하느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고 하느님과의 완전한 친교 안에서 참된 행복을 영원히 누리게 됩니다.

4. 연옥

연옥은 천국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거룩함을 얻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정화를 뜻합니다. 교회는 성경과 교회의 전통이 증언하는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의 관습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죽은 후에 거쳐야 할 정화의 과정, 곧 연옥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와 희생을 통하여 죽은 이들의 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5. 지옥

지옥은 어떤 공간이 아니라 하느님과 이루는 친교를 스스로 거부하여 하느님과 영원히 단절된 상태를 뜻합니다. 지옥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은 신자들에게 겁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의 삶을 하느님 뜻에 따라 살아가라는 회개로의 간절한 초대입니다.

“주님, 믿는 이들에게는 죽음이 죽음이 아니요 새로운 삶으로 옮아감이오니 세상에서 깃들이던 이 집이 허물어지면 하늘에 영원한 거처가 마련되나이다.”²⁾

- 장례미사의 위령감사송 | 중에서 -

오늘(11월 15일)은 제4차 '세계 가난한 이의 날'입니다

'세계 가난한 이의 날' 담화문은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교회발표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 전염병의 확산 상황에서, 죽은 이들을 위한 전대사 수여에 관한 교황청 내사원 교령

교황청 내사원은 전 세계적 전염병의 확산 상황에서,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한 전대사 수여 조건을 일부 수정하여 2020년 11월 한 달간 전대사를 수여한다는 교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전대사 조건은 QR 스캔▶



세계 가난한 이의 기도 날 문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억압받는 사람을 해방하려 오신 주님
찬미받으소서

가난한 사람들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
물질 중심의 소비사회에서 당신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도 가난해야 함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탐욕과 이기적인 마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가난한 사람의 뜻과 소리에 귀 기울이며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27년 11월 19일 순성재 야고보 신부(50세)
- 2002년 11월 16일 박병윤 토마스 신부(75세)
- 2016년 11월 20일 김대군 파트리치오 신부(77세)
- 2016년 11월 21일 김정직 디오니시오 신부(75세)
- 2019년 11월 17일 오기오 요한크리소스토모 신부(68세)
- 2019년 11월 18일 박성구 요셉 신부(70세)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 운동

2020년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 고통과 아픔에 동참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소서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신 주님!

당신이 선포하신 하느님의 나라가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사귐 · 섬김 · 나눔의 공동체임을 깨닫고
가난한 이들을 통해 당신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소서

가난한 사람의 벗!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18.7.16. 서울대교구장 추기경 염수정 인준)

교구정일립

갤러리1898 전시안내 / 문의: 02)727-2336
나경환 신부 제3회 개인전: 1전시실
가영시아 사진전: 2전시실
전시일정: 11월18일(수)~23일(월)

시복시성 기원미사

이달의 하느님의 종 '김홍금'
때: 매월 셋째주(화) 11월17일 오전 11시(157회)
곳: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B2 성 정하상 기념경당
문의: 02)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주교회의 여성소위원회 정기 세미나 안내

주제: "당신의 길을 걸어 생명을 얻었나이다"
(미혼모 · 부를 위한 예방적 대안과 회복적 대안)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때, 곳: 11월17일(화) 14시~17시, 가톨릭회관 3층 강의실(명동) / 문의: 02)460-7641

故 도요안 신부님 선종 10주기 알림

2020년 11월22일은 한국에서 50년간 노동자와
이주민을 위해 헌신하신 도요안 신부님(살레시
오수도회)의 선종 10주기입니다. 당일 '노동 · 이
주 사목의 교회적 사명과 비전'을 주제로 심포
지엄을 진행하고 추모 미사를 봉헌합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외부 지인을 모실 수 없음에
양해를 구하며, 교우분들의 기도 바랍니다. 심포
지엄 자료집은 아래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공동주관 문의: 02)924-2721
노동사목위원회, 02)924-9970 이주사목위원회

11월 자살유가족을 위한 월례미사 안내

대상: 자살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모든 분들
때: 11월21일(토) 10시30분 매월 세번째(토)
곳: 가톨릭회관 4층 413호 한마음한몸운동본부(명동)
유가족 면담 및 문의: 02)727-2495

제38회 가톨릭 에코포럼

주제: 코로나19와 원헬스: 동물, 인간 그리고 지
구의 건강 / 강사: 천명선 교수(서울대 수의학과)
신청: 11월19일(목)까지 60명 선착순 마감
(온라인 <https://bit.ly/2HCqMhH>로 신청)
유튜브 생중계 참여 가능: <https://bit.ly/2EZabf>
때, 곳: 11월25일(수) 19시~21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명동) / 문의: 02)727-2283 환경사목위원회

'2020 대림특강: 미술사를 움직인 예술가들' 신청안내
가톨릭예술아카데미에서는 예술 속에서 참신앙을
느낄 수 있는 대림특강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문의: 02)751-4107, 4110 홍보위원회
대상: 20대 이상 천주교 신자 및 일반인(선착순 300명)
회비: 4만원(4주 일괄신청) / 신청: 온라인 신청(네이버 카
페 '가톨릭예술아카데미' <https://cafe.naver.com/catholicartstory>)
때: 12월2일~23일 매주(수) 19시30분~21시
곳: 줌(Zoom) 어플을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강좌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카페 '가톨릭예술아카데미' 참조

12월2일	'안드레이 루블료프와 러시아의 황금 시기'	장궁선 신부
12월9일	사그라다 팔미리아 성당과 영성	김광현 교수
12월16일	앙리 마티스 신의 집을 짓다 'ঁাস 성당'	가비노김 작가
12월23일	그리스도교 미술의 '왕야' 상징을 통해 보는 위기의 시대 대립의 의미	하영유 수녀

영성심리상담교육원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
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진로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
지구별 상담소: 4성북지구(노동사목회관), 5지구
(노원성당), 9지구(천호동성당), 13지구(삼성성
당), 17지구(화곡본동성당)

문의(예약): 02)727-2139 / (월~금) 10시~18시
전화상담: 02)727-2137 / (월~금) 10시~18시(점심시간 12시~13시)

직원모집

명동밥집(무료급식소) 조리 직원 모집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 되신 분(필수)
분야: 주방조리(계약직) / 대상: 일요일 근무 가능자(필수),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우대), 단체 급식 조리경력자(우대)
서류: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홈페이지 참조
이메일(obos-hr@obos.or.kr) 및 우편(서울시 종구
명동길 80 가톨릭회관 422호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인
사담당) 접수 / 11월24일 18시 도착분에 한함

잠실7동성당 관리직원 모집 / 문의: 02)416-7286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교우/인원: 주간 관리직원 1명
(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 전환 가능, 도시가스 사용시설 안전관리
및 방화관리 자격증 소지자 우대) 야간 관리직원 1명(계약직)
서류: 응시원서(천주교 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참조)
인내에서 다운로드), 교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합격자 개별 통보) / 11월20일(금)
까지 우편(우 05573,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2길 26 잠실7
동성당) 및 이메일(baeanto1955@seoul.catholic.or.kr) 접수

수도회 성소모임

III

곳

문의

도미니코 수도회	주말	강북구 삼양로 139나길 16-8	010-3012-2616 조성하 신부
돈보스코 여자 재속회	수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5	0505-1306-1505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매월 넷째주(토) 15시~(일) 13시	서울 분원(장충동)	010-8353-2323
율리비파노 성 베네딕도회 수도원	수시	수도원(고성)	010-5301-1319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11월21일(토) 14시	수도원(개화동)	010-3800-1579
프란치스코 전교봉사 수녀회	11월22일(일) 14시	가톨릭회관 526호(아프리카침비아선교후원회)	010-3679-7198 강피아 수녀



신간

겨자씨 말씀

프란치스코 교황 지음
틈새책방 | 152쪽 | 1만4천원
문의: 02)6397-9452

프란치스코 교황이 예수님 말씀에서 길어 올린 생각들을 엮은 책이다. 씨 뿌리는 사람, 착한 시마리아인 등 성경 속 비유들 속에 숨어 있는 진리를 알려주며 그리스도인의 사랑 방식, 이방인을 환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등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전한다.

신간

나를 알고 너를 알고 하느님 세상 속으로

전경표 지음
기쁜소식 | 196쪽 | 1만1천원
문의: 02)762-1194



이 책은 많은 이들에게 널리 알려진 MBTI의 16가지 유형을 설명하고 그 가운데 자기 자신의 유형을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영적 성장을 원하는 초·중급자들과 신앙 안에서 또 다른 나의 모습을 만나고 싶은 이들에게 이 책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신간

새 인간 그리스도에게 지혜를 청하다

서한석 지음
가톨릭대학교출판부 | 300쪽 | 2만2천원
문의: 02)740-9718



이 책은 현대인들의 형식화된 신앙 속에서 거의 죽어버린 인간 예수님을 다시 소생시키려고 애쓴다. 지상의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에 감동받고 깨달음을 얻은 이들, 특별히 사도들이었던 열두 제자들의 시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론적으로 납득할 수 있도록 그 '신앙의 타당함'을 제시한다.

신간

교회법해설(전6권)

정진석 지음
가톨릭대학교출판부 | 6426쪽 | 19만1천원
문의: 02)740-97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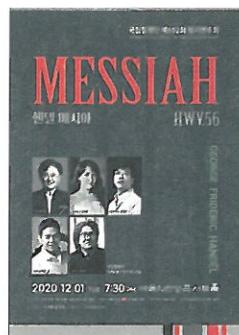


교회는 교회법전을 교회 생활 전반에 있어서 '봉사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정진석 추기경의 한국어 교회법 해설서 전집은 주교직 수행 중에 무려 20여 년에 걸쳐 총 15권으로 집필한 것으로 올해 2020년 '주교 서품 50주년'을 맞이하여 총 6권으로 새롭게 편찬하였다.

연주회

제182회 정기연주회 헨델 메시아

입장료: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B석 1만원 / 문의: 02)587-8111
전화 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어플리케이션의 본 안내문 자참시 주보 1부로 4명 30% 할인



국립합창단의 제182회 정기연주회 <헨델 메시아>가 12월1일(화) 19시 30분,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국립합창단과 바로크 시대 음악 연주 단체 카메라타 안티콰 서울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 인류의 위대한 음악 유산으로 평가받는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선보인다.

영화

봉쇄수도원 카르투시오

문의: 010-8895-4696, 010-4284-6348
현장 결제 시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어플리케이션의 본 안내문 자참 시 주보 1부로 1천 원 할인
(종북 할인 불가/ 서울 극장에서만 할인 됩니다.)



다큐멘터리 <봉쇄수도원 카르투시오>가 11월19일(목) 전국 극장에서 개봉한다. 세상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한 평 독방에서 오로지 십자가만 바라보는 이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카르투시오 수사들의 세상을 향한 끝없는 기도와 특별한 사랑이 수도원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불안에 지친 우리를 찾아온다.

제2156호(성 바오로 사도 개종 축일)



http://www.yeonhui.or.kr

03727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 4451 FAX : 336-2233

주임신부 : 류시창(베드로)

보좌신부 : 이철규(아우구스티노)

연령회장 : 강병국(비오로) 010-5512-4450

주일 미사	• 토요일 :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 주 일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디),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유 아 세례	홀수 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훈 인 면 담	매 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평일 미사	• 월요일 : 06시 화요일 :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 06시, 10시 토요일 : 06시	성체신심미사	매 월 첫째 금요일 오전 10시
		성모신심미사	매 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 ◎ 세례식 : 11월 29일(주일) 11시 미사
예절연습 : 11월 28일(토) 오후 7시 / 대성전
※ 예절연습에 대부모님과 함께 참석바랍니다.

◎ 여성구반장 회합

일시 : 11월 15일(주일) 12시 / 대성전

◎ 청년레지오(샛별 Pr.) 단원 모집

대상 :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청년

회합(기도) : 화요일 오후 7시 30분

문의 : 단장 (010-7129-2633)

◎ 청년전례단 신입 단원 모집

대상 : 세례받은 청년 누구나

활동 : 전례 진행 및 준비에 필요한 모든 활동

회합 : 주일 오후 4시 30분

문의 : -청년 20 / 예그리나 전례단(010-7330-9148)

-청년 30 / 프리모 전례단(010-9040-8432)

◎ 수험생을 위한 100일 기도

대상 : 수능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의 학부모

문의 : 중고등부자모회장 (010-7752-4976)

※ 신청은 문자로 연락바랍니다.

◎ 마스크 의무착용 예외규정

(초등부 저학년/반디주일학교)

“11월 13일부터 공공시설 ·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이 법적으로 의무화됩니다.

그러나 만 14세 미만, 호흡이 어려운 사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발달 · 지체 장애를

지닌 사람들은 이 규제에서 ‘면제 대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당의 초등부, 반디 친구들에

대해 신자분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 카페하랑에서 판매합니다.

* 더치커피 300ml 8,000원

* 최고의 국산재료로 달여만든 과립형 수제한방차
 쌍화차 400g 23,000원, 생강차 350g 23,000원

※ 판매시간 : 주일 오전 9시 30분~교중미사 후

※ 평일에는 사무실로 문의해 주세요.

◎ 구역활성화를 위해 여성구역회에서 강화 순무김치를 판매합니다.

일시 : 11월 25일(수) 오전 10시 미사후

가격 : 20,000원 / 2kg

※ 여성구역회에서 직접 담아서 판매합니다.

◎ 2021년 각 단체 예산 신청서를 11월 15일(주일) 까지 사무실로 제출 바랍니다.

◎ 남성 울뜨레야 모임

일시 : 11월 15일(주일) 오전 11시 미사 후 / 교육관 301호

◎ 여성 울뜨레야 모임

일시 : 11월 24일(화) 오전 10시 미사 후 / 교육관 304호

◎ 군입대 자녀 성탄선물은 12월 6일(주일)까지 사무실에 신청 바랍니다.

◎ 오늘은 리모델링 2차 현금이 있습니다.

◎ 교무금 책정 현황 (2020. 11. 8.)

총세대	책정세대	미책정세대	책정율	납부율
2,198	944	1,254	42.9%	40.4%

교무금계좌번호	우리은행	137-04-110875
---------	------	---------------

※ 교무금 자동이체 신청해서 납부 바랍니다.

※ 책정한 세대는 12월분까지 납부해주시고,

미책정 세대는 빠른 시일 내에 교무금을 책정하신 후
2020년도 교무금을 완납해주시기 바랍니다.

◎ 리모델링 기금 (11월 2일~8일)

누 계 866,994,281원

◎ 감사헌금 (11월 2일~8일)

익 명 일십만원 박수연 삼만원

익 명 일십만원 김광호 삼십만원

김은순 오만원 익 명 일십만원

권정자 일십만원 노계숙 일백만원

김정애 오만원 박춘자 일십만원

◎ 우리들의 정성 (연중 제32주일)

교무금 18,580,000원

주일헌금 3,279,100원

평신도주일 2차헌금 1,512,000원